

## 경기분도 추진위 창립, 본격 활동



### 올해 말까지 200만명 서명운동

경기분도 추진을 위한 창립대회 및 200만명 서명운동 전개식이 지난 4일 오후 4시 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돼 경기분도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날 총회에는 열린우리당 정성호, 이철우(연천.포천) 국회의원과

임충빈 양주시장, 김완수 양주시의회 의장, 허 완 의정부시의회의장, 각 사회단체장,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완수(양주시의회 의장) 집행위원장은 대회를 통해 "경기도는 한강을 기점으로 생활권이 이

고 말했다.

그는 또 "정치적 목적 및 행정비용 과다소요 등을 내세운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는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올바른 접근방식이 아니며 행정구역 조정은 행정편의가 아닌 주민편의가 우선돼야 한다"

원화돼 1천만 도민의 화합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고 북부지역은 역차별 피해를 입어 왔다"며 "지역발전 걸림돌이었던 각종 제도과 정책을 바꾸고 개선해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희망의 고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기분도를 실현해야 한다"

추진위는 이날부터 200만명 서명운동을 시작하는 한편 새로 선출된 집행부를 중심으로 앞으로 분도 추진에 관한 구체적인 향후 일정을 마련하고 각 시,군별로 추진위를 별도 구성, 분도 담임성 홍보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추진위는 올해 말까지 서명작업을 마친 뒤 청와대와 행자부, 국회 등에 서명부를 첨부한 건의서를 낼 방침이다. 추진위는 지난해 말 경기북부 10개 시,군 자치단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시,군의회의장, 도시,군 의원 등 179명이 모여 발족된 이후 "정치 공방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의지 표현으로 4.15총선까지 활동을 잠정 중단해 왔다.한편 이날 대회에서 참석자들은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과 홍문종 전 의원을 공동 추진위원장으로 한나라당 이재창 의원을 상임고문으로 각각 추대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hiteil.net

## 포천시특화발전사업계획수립연구 최종보고회

### 장밋빛 청사진 아닌 성공 사업으로 추진돼야



포천시는 지난 4일 오후 4시 포천시청 3층 회의실에서 포천시특화발전사업계획수립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150여원을 투입해 폐석산을 활용한 아트밸리 개발 구상을 발표했다.

박운중 포천시청장과 권병호,김대동,류선무,박수경,박경자 포천시 정책위원,경기개발연구원 이정훈 박사, 포천시의회 이종표,유성현 의원,가나아트 이목경 대표,한진섭 석조각가,동아대 김광우교수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보고회는 폐석산에 다시 조각을 해 두 번 환경을 파괴하기 보다는 설치작업 위주로 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이 지적에 대해 참석자들중 일부는 동의했으나 이렇다할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이날 참석자들이 사업성패에 대한 책임과 관계없는 듯한 분위기였다는 지적이다.

1년에 10억원 이상이 운영비로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폐석산 아트밸리 조성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다각적인 연구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보고회에서 경기개발연구원 이정훈 박사는 "우리나라 낙후지역 발전사업의 전형적인 모범로 바서는 성공확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며 "석벽 조각에 20억원, 미술관 건립 18억원, 미래조각스튜디오 조성 20억4천만원, 거주동 6억2천만

원,스튜디오 및 작업장 1억6천만원, 작가개인창작스튜디오 1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운영비는 연간 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포천문화재단 등 인프라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략적 고려사항으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거점지구 준공시까지 운영하고 포천문화재단을 2007년 하반기중에 설립하여 폐석산 아트밸리를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도시계획시설사업(유원지)과 지구단위계획수립 등 시설결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이 사업의 이상적인 대안으로는 목표치를 조금 더 높게 잡으면 미술관과 미대분원,개인분양 창작스튜디오 건축물을 기념비적인 것으로 하도록 가이드라인을 강화하고 건축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며 "이 경우 미술관은 150억 범위내에서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지원과 민자유치 등에 의거해서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중호 포천시의회의원은 "1년에 10억원의 운영비는 현재 포천시로서 반월아트홀 관리비도 어려운 처지에 감당하기 힘들다"며 "이 계획에 대한 관광효과를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운중 포천시장은 "정부지원을 확인한다"며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광우 교수는 "20여원을 들여 다시 조각하는 것은 또 다른 훼손이다"며 "자연의 특성과 인간의 특성을 하나로 묶어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는 폐석산 아이템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경 교수는 "포천지역 관광은 1일 관광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관심을 갖고 숙박하며 관광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진섭 조각가는 "미술전문단지+관광단지로 개발하여 전 세계 독에 대한 집적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경자 교수는 "후발도시로서 가졌던 나쁜 이미지를 한방에 날릴 수 있는 포천만의 특화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운중 포천시장은 "이번 사업은 육박이 있다. 성공에 대한 욕망이다. 예를들면 산정호수는 대한민국에 단 하나다. 1년간 입장료 수입이 10억원이 넘는다. 여기에 뒤따르는 사업도 성공할 것으로 확신한다. 운영비 또한 지금 예상기는 10억원이지만 20-30억원이 소요될 수 있다"며 사업에 대한 확신을 보였다. 그러나 주변 환경과 인프라 확충이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의 폐석산 아트밸리의 성공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는게 관련업계의 지적이다.

특히 포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조각가는 "과대한 예산을 들여 용역을 맡겨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사업진행과정에서 지역 작가들이 배제되는 이유도 알 수 없다"며 "지역작가들이 더 열정과 성의를 갖고 전문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hiteil.net

## 환경의 날 기념 '인라인스케이트타기 대회'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포천 가꾸기



포천시는 5일 제9회 환경의 날을 기념해 제1회 경기 인라인스케이트타기 대회를 대진대학교 운동장 및 진입로 일원에서 개최했다.

포천시와 선단동이 주최하고 선단동체육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1,000여명의 주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오전 6시 15분부터 8시 30분

까지 기념식과 본 대회, 경품추첨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주민들은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거나 가볍게 걷고 뛰면서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포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의수기자 les5682@hanmail.net

## 농촌주민 인터넷 시대 연다

포천시 마을정보사랑방에 PC 전달



소에 설치되며 마을 이장, 통장이 장비관리 책임을 맡게 된다. 이번 사업을 위해 각 마을 당 430만원씩 모두 1억 2,04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포천시는 정보화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인터넷 인프라 구축

사업을 꾸준히 전개해 도·농간 정보화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운중 포천시장은 인사를 통해 인터넷 시대에 이를 쉽게 접할 수 없는 사람들은, 그만큼의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지적하고, 마을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인터넷을 사용해 정보의 바다를 마음껏 향유할 수 있도록 '마을정보사랑방'을 잘 관리하고 적극 홍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마을정보사랑방은 마을회관 등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 설치되며 마을 이장, 통장이 장비관리 책임을 맡게 된다. 이번 사업을 위해 각 마을 당 430만원씩 모두 1억 2,04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포천시는 정보화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인터넷 인프라 구축 사업을 꾸준히 전개해 도·농간 정보화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병갑 기자 best114@hiteil.net

## CLEAN 사업으로 - 사장님도 근로자도 웃었습니다!

CLEAN 사업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일터를 만드는 사업으로, **산업재해예방, 구인난 해소, 산업공동화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깨끗하게! 편안하게! CLEAN 사업으로 앞서가십시오! 1544-3088

- ☀ 무료시설개선지원 : 제조업 사업장에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안전설비, 작업환경, 작업공정 개선에 필요한 시설을 무료로 설치해 드립니다.
- ☀ 안전보건기술지원 :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관리 기술을 지원해 드립니다.
- ☀ 건강도우미 운영 : 연 3회 전문가가 방문해 근로자 건강상담과 직업관련성 질환을 예방해줍니다. [clean.kosha.net](http://clean.kosha.net)